

지역 소식통

고창멜론, 경진대회 유튜브 온라인 경매

고창군이 오는 27일 고창읍성 광장에서 제4회 고창멜론 경진대회를 통해 올해의 고창멜론을 선정하고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여 최고 낙찰가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고창군과 고창군멜론생산자연연합회(회장 김대현)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1농가가 신청해 현장 평가, 소비자평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고창 최고멜론을 선정하고 유튜브 '고창군' 채널을 통해 온라인 경매가 진행된다.

또한 경진대회와 경매행사 뿐만 아니라 멜론 시식, 초대가수 공연, 경품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 생산농가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앞서 지난해 온라인 경매행사에서 1등 멜론 한봉이 275만원에 낙찰되어 큰 주목을 받은 고창멜론은 최근 서울 가락동 농산물 경매시장에서 높은 경매가를 받는 등 전국 최고의 멜론 산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운영 개시

부안군은 미세먼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20개소를 설치하여, 8월부터 등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치 장소는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원, 관공서, 시외버스터미널, 아파트 밀집지역, 주요 관광지 등에 설치하였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 정보를 알기 쉽게 LED램프로 표출하여 정보기기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이 한눈에 미세먼지 농도를 인식하여,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부안군 대기측정소에서 받은 대기질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표출하여,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파란색(파핑), 녹색(보통), 노란색(나쁨), 적색(매우나쁨)의 총 4가지 색상과 표정 이모티콘을 표시해 대기 상태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어 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통시장 소비 쿠폰 환급

정읍시, 물품구매 금액 따라 최대 1만5000원권 온누리상품권 차등 지급

생활물가 상승과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읍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전통시장 소비 쿠폰(온누리상품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소비 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을 주고 매출 감소로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소비 쿠폰으로 차등 지급해 전통시장의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가계지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번 사업비는 총 5천500만원이 투입되며 지역 전통시장인 생고을시장, 신태인시장, 연지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2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합산금액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매 시 5천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1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5천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상품권 환급장소는 생고을시장 내 고객 센터와 신태인시장 1층 상인회 사무실, 연지시장 변영회 사무실이다.

상품권 교환 시에는 당일 물품구매 영수증(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장과 시내 주요 구간에 행사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전통시장 소비 촉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과 주변 둘러보기

'고창학 아카데미 4차시 탐방'

고창군이 지난 20일 군민과 함께하는 '2022년 고창학 아카데미' 4회차 탐방프로그램으로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그 주변을 둘러봤다.

2022년 고창학 아카데미는 고창 자연유산의 인문학적 사유와 현장론적 탐색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에게 듣는 '고창학강연'과 지역의 명사들과 함께하는 '고창 지역문화 탐방'으로 구성돼 이어지고 있다.

이번 4차시 탐방에는 김준 박사(전 한국의갯벌 세계유산추진단 추진위원)의 안내로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과 주변 둘러보기'가 진행됐다.

김준 박사는 "고창갯벌은 우리나라 갯벌의 특성인 자연과 인간과 문화가 결합된 갯벌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갯벌이다"면서 "고창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이러한 가치를 잘



고창군이 지난 20일 군민과 함께하는 2022년 고창학 아카데미 4회차 탐방프로그램으로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그 주변을 둘러봤다.

보존해 미래세대에 물려주겠다는 세계인과의 약속이다"고 강조했다.

또 참가자들은 △사슴마을 자연전시관(고창소금) △삼사르고창갯벌센터(심원면 두어리) △만들마을 갯벌과 생업환경 등을 찾아 고창의 고유한 해

안생태 지원의 활용법을 고민했다.

향후 '고창학 아카데미'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생물권보전지역과 습지(김창환 전북대 교수) △고창의 들녘과 강(신정일, 우리땅장기 이사장) 등이 준비돼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접수

부안군이 22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하였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주거비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 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1억7천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안군의 청년주거비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포털(www.bk21.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23일 제33회 미스변산 선발대회 입상자 7명을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부안의 매력을 널리 알려"

부안군, 미스변산 선발대회 입상자 관광홍보대사로 위촉

부안군은 23일 제33회 미스변산 선발대회 입상자 7명을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부안의 관광 명소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던 미스변산 선발대회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년만에 변산해수욕장에서 다시 관중들 앞에서 개최 되었다.

위촉사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미스변산 진 나유림 선 성진, 미 교명진, 전북도민일보 최희승, 더마버드화장품 김현정, 제일건설 김다정 부안참뽕 정소정 양 등 총 7명을 부안군 관광홍보

대사로 위촉하며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미스변산으로 선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안을 대표하는 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부안군의 문화와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져 부안의 매력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미스변산 입상자 7명은 이후, 부안 관광을 위한 SNS홍보, 홍보영상 촬영 등의 활동을 통해 부안군 관광홍보대사로 온라인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부안군 각종 행사에 함께하여 부안군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원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최종보고회

정읍시가 지역 맞춤형 원예 품목 육성을 위한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중장기(2023년~2027년) 원예산업발전계획을 통해 기존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관련 산업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22일 농산물 생산·유통 변화와 중앙부처 유통정책 개편 방향에 따른 정읍시 원예산업 발전계획(2023~2027년)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IT팀을 구성하고 시 담당자와 농협·생산단체 등 원예산업 주체들과 협력·협의 체계를 구축했다.

원예산업 발전계획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수립한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통합해 일괄 수립하는 지역단위 원예산업 정책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최근 변화하고 있는 생산구조·시장환경 및 생산·유통 관련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를 통해 중장기 원예산업 발전계획 초안을 수립하고 정부 검토와 의견 회신을 거쳐 오는 10월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원예산업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급격히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